

# 아합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신적 거짓’에 대한 연구(왕상 22장)

허환구\*

## 목 차

- I. 서론
- II. 오므리-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왕상 16:15-왕상 21:29)
  - 1. 오므리 왕조의 등장배경
  - 2. 아합시대 때 일어난 총체적 우상숭배
  - 3.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반격하시는 하나님
- III. 아합의 심판에 적용되는 신적 거짓(왕상 22:1-38)
  - 1. 하나님의 신적 속임으로 심판받는 아합
  - 2. 신적 속임에 대한 성경의 다른 예들
- IV. 결론

## 〈국문초록〉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열왕기서에서 특별한 형식으로 등장하는 엘리야-엘리사 사이클(왕상 17-왕하 13장)이 있다. 엘리야-엘리사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오므리 왕조의 토대가 되는 오므리와 아합시대의 전방위적인 바알 숭배가 있다. 특히 아합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바울 숭배가 전국가적으로 행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서 야웨 신앙이 극도로 위협받게 된다. 엘리야와 엘리사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는 이스라엘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는 바알 숭배와 전면전을 벌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바알의 대리인자격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 야웨의 대리자격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바알숭배를 장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엘리야-엘리사 사이클의 중심내용이다.

본 논문은 엘리야-엘리사 사이클에 해당하는 본문 중 특히 열왕기상 22장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합에 대한 심판에 집중한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왕상 21:19) 심판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고집과 자기욕망 추구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신적 속임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의 요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신적 속임 전략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지 않으며 아합의 불순종과 악한 욕망으로 인한 영적 무감각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경이 되는 엘리야-엘리사 사이클 전체를 일별하고 구체적으로 해당본문(왕상 22장)을 자세히 주석하며, 신적 속임이 나타나는 구약의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하지만 이 신적 속임의 전략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교리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심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신명기 역사서, 엘리야-엘리사 사이클, 오므리 왕조, 바알 숭배, 신적 속임, 하나님의 심판

## I. 서론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열왕기상하는 형식에 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나 주제에서는 어느 일반역사에서와 같은 왕조중심의 전개가 아니라 독특한 저자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결코 일반역사에서 하듯이 영토 확장이라든지, 부국강병의 기준에서 왕들의 치적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저자는 각 왕들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의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sup> 주목받아야 할 왕들은 자세히 다루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무시해야 할 왕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낀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소위 '엘리아-엘리사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등장하는 왕들은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주목받아서 안 되는 왕들이다. 단순한 수치적으로만 볼 때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아가 등장해서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기까지 모두 합해서 열아홉 장이 엘리아와 엘리사가 주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열왕기상하가 전부 마흔일곱 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체의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열왕기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주목받아야 할 대상이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라 바로 엘리아와 엘리사이다. 엘리아와 엘리사가 활약한 이 시대는 오므리-아합 왕조시대다. 이 시대는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융성기라고 할 수 있다. 오므리는 메사비문의 증거에 의하면 모압을 정복했던 강력한 군주로 언급된다.<sup>2)</sup> 그리고 더 나중의 기록인 앗시리아 문서들은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 정복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sup>3)</sup> 아합 통치 22년(왕상 16:29), 아합의

1)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왕들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명기 역사서의 중심 주제인 우상숭배와 산당제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상원, "신명기사가에게 요시야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27(1)호(2021), 68.

2) J. B. Pritchard, *ANET 3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320.

아들 아하시야의 통치 2년(왕상 22:51),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 12년(왕하 3:1), 예후의 통치 28년(왕하 10:36),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통치 17년(왕하 13:1), 모두 81년이다. 엘리사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왕하 13:20)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략 칠 팔십년 정도 활동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엘리사 사후, 요아스 통치 16년(왕하 13:10),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통치 41년(왕하 14:23),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통치 6개월(왕하 15:8), 살룸 통치 1개월(왕하 15:13), 므나헴 통치 10년(왕하 15:17),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 통치 2년(왕하 15:23), 베가 통치 20년(왕하 15:27), 호세아 통치 9년(왕하 17:1), 모두 100년 정도 되는데 이 100년을 다루는 분량은 열왕기하 14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모두 4장이다. 70-80년을 열아홉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비해 100여년을 단지 네 장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분명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왕기상하는 단순히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특별한 관점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적으로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 주제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하는 오므리-아합 왕조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분쇄하고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리인인 야훼주의자, 엘리야-엘리사의 활동이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의 아모스와 호세아와 남유다의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이사야, 미가도 그 사상적 측면에서는 엘리야-엘리사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적으로도 엘리야-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상하의 가운데에 위치해 중심을 이룬다. 결국 열왕기상하는 엘리야-엘리사가 이끌어가는 역사이다.

이러한 엘리야-엘리사 사이클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이다. 이 글은 열왕기왕상 22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명시적으로 아합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통해 아합 주변의 선

---

3) 위의 책, 284.

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이신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이는 것이 그의 성품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 이야기의 두 중심 인물 아합과 미가야에 관한 이야기의 기원과 성장에 관한 부분은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합의된 결론은 없다.<sup>4)</sup>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난제 중의 하나로 등장한다.<sup>5)</sup> 이에 대해 이 글은 성경본문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는 엘리야-엘리사 이야기라는 큰 틀 속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예정은 열려 있는 것이다. 아합이 돌이키기만 하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아합은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거절한다. 결국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방법으로 신적 거짓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신다.

이 글의 논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신적 거짓이라는 전략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한 방법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조종당하는 무기력하고 비윤리적인 신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을 신적 거짓이라는 전략을 통해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옹호하는 목적을 지니게 된다.

4) Nelson, Richard,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김희권 역, 『열왕기상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38.

5) Walter C. Kaiser Jr., *Hard Sayings of the Bible*, 김재영 외 3인 공역, 『IVP 성경난제주석』 (서울: IVP, 2017). 233.

## II. 오므리-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 (왕상16:15-왕상 21:29)

### 1. 오므리왕조의 등장배경

열왕기상을 읽어 나갈 때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 때, 북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솔로몬식 정치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솔로몬이 정략결혼과 그로 인한 우상숭배의 삶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출애굽의 목표<sup>6)</sup>를 무효화시키고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애굽체제를 출현시켰다. 이러한 솔로몬식 체제에 대한 심판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독립이었다. 왕실이 분리되었다고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배까지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 두 왕국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국가를 이루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두 나라의 왕실을 분리시킨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르호보암 이후 유다는 북 왕국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분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왕상 14:30),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왕상 15:7), 아비얌의 아들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왕상 15:16, 32)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영토나 인구면에서 남유다의 다섯 배나 되는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분열되어 계속 분쟁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점차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속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강력한 오므리 군주가 들어서게 된다.<sup>7)</sup> 북이스라엘도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기까지는 제대로 된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6) 김희권은 출애굽기 15장 13-18절의 주석에서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김희권, 『모세오경』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538.

7) 오므리-아합 시대가 국제정치, 군사, 건설에서 고대근동에서 강대국이었음을 보여준다.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박문재 역, 『고대 이스라엘 역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325-330.

북이스라엘의 부흥군주 오므리가 등장하면서 점차 예속화의 길을 가던 남유다는 오므리-아합 때가 되면 거의 북이스라엘의 속국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함께 싸우자는 아합의 제안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왕상 22:4)라고 대답한다. 이 말은 아합시대 때 와서는 완전한 힘의 우위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실효 지배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장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한 개요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왕상 22:44)고 언급한다.<sup>8)</sup> 여호사밧의 아버지 유다왕 아사까지는 이스라엘왕들과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유다왕 르호보암 이후 분열되었던 왕실인 북이스라엘 왕국은 힘의 우위에서 계속 남유다를 압박해오다가 아합 때(남유다의 여호사밧) 와서는 완전히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 2. 아합시대에 일어난 총체적 우상숭배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한 실효지배 상황에서 아합왕때 놀라운 변화가 발생한다. 아합왕은 그의 치세 22년 중 유다의 여호사밧왕과 18년이나 동시대를 공유한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고 나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2년(왕상 22:51)을,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5년<sup>9)</sup>(왕

8) 그레이는 왕상 22장 4-18절에서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대등한 관계로 나오지만 29절 이하에서는 봉신으로 암시된다고 말한다. John Gray, *1 Kings(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김진호 외 2인 역, 『국제성서주석·열왕기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652.

9) 물론 여호람이 12년 통치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사후, 7년 동안은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으로 이름이 같다.(왕하 1:17, 왕하 8:16)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이름의 남북 두 왕의 재위 연도가 거의 겹친다. 남쪽 유다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일 년만 통치하고 예후에 의해 살해 당한다.(왕하 8:26, 9:27-29) 이 아하시야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왕상 22:51, 왕하 1장)는 다르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 사마리아에서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고 그 이후 죽었다.

하 3:1)을 함께 한다. 이는 여호사밧의 재위 기간이 25년이라는 기록에 근거한다.(왕상 22:42)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오므리-아합 때는 그 이전과는 다른 국가적 차원의 영적 변화가 발생한다.<sup>10)</sup> 여로보암 이후 오므리 이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성경은 지적한다.(왕상 15:26, 34, 16:2, 7, 19, 26) 아합 이전의 왕들이 따랐던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 벧엘과 단(왕상 12:29)에서 섬기고,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이었다.(왕상 12:28)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출 20:4) 하지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제2계명을 어겼던 이전 왕들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아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써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3)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전 왕들이 같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겼다면 아합 때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그 죄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아합 이전에는 신앙이 개인적 혹은 소규모적 일탈이었다면 아합 때부터는 공개적, 국가적 차원으로 배교가 북이스라엘의 전 국가에 편만하게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혼인이었다.(왕상 16:31) 아마도 이 혼인은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두로와 시돈과의 무역 혹은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과의 동맹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정치, 경제, 무역, 종교는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신명기 7장 1-6절(가나안 족속과의 혼인금지)의 정면 위배요, 솔로몬의 삶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시돈 왕인 바알의 제사장 옛바알

10) 박기형은 바알주의가 오므리-아합 시대때 국가종교가 되어 단순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박기형, “오므리의 율례와 우상 숭배”, 인문학연구 50집(2021년 12월 간행 예정), 6.

11) 박기형은 바알주의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토지제도가 붕괴되었고 토지를 매개로 형성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의 글, 12-13.

의 딸인 이세벨과의 결혼은 분명히 정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고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야훼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 다른 가치 체제가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오므리-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부가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팽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sup>12)</sup>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국교가 되어 버린다.

필자가 보기에는 왕상 16장 29-34절(아합시대 요약)은 여로보암 이래 희미해진 야훼 신앙이 아예 이 시점에는 사라져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성경의 이 지점은 색깔로 표현한다면 짙은 검은 색으로 암흑천지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 암흑천지를 열왕기 기자는 짧은 한 절의 에피소드(왕상 16:34, 그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를 삽입함으로써 그 흑암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말해준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의하면,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만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을 잃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게 된다. 여리고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다가 멸망당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멸망 받은 것이다. 강정주는 이것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본다.<sup>13)</sup>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와서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 전통까지도 완전히 짓밟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4)</sup>

12) 증가된 국부가 일부 사람에게만 돌아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본다.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330.

13) 강정주, 『열왕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용인: 킹덤북스, 2015), 132-133.

14) 마빈 스위니는 벤엘 사람 히엘에 의한 여리고 건축을 가나안 우상숭배의 증가하는 영향력으로 보며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의 역전현상으로 이해한다. Marvin A. Sweeney, *I&II Ki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206-207.

### 3.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반격하시는 하나님

이런 배경 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클이 시작된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처한 야훼 신앙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의 열왕기상 16장 29-34절은 열왕기상하의 중요한 변환점이다.<sup>15)</sup> 끊임없이 추락의 길로 가던 야훼 신앙의 반격,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다. 더 이상 두었다가는 출애굽 구원의 무효화를 가져올 위기상황에서 야훼 신앙의 대변자인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한다. 아합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거의 북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받아들인 바알, 아세라 종교에 지배당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방위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한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대항하여 싸운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회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파급되었기 때문이다. 제정일치의 사회인 아합 당시는 종교와 일상생활은 분리될 수 없었다. 엘리야는 주로 정치적으로 아합과 이세벨과 대결을 펼치고, 아합과 이세벨의 국가 운영의 핵심인 바알과 아세라 종교주의자들과 싸운다. 하지만 엘리사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밀착적, 민중생활적 예언자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곳곳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퇴치하고 치유해 나간다. 이 당시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헌법에 해당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만이 아니다.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혹은 야훼와 다른 신을 병행해서 섬기는 것은 단지 종교행위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비일(G. K. Beale)이 그의 책, <We become what we worship>에서 말했듯이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예배자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

15) 프로반은 이 부분을 하나님에 의한 역사의 개입으로 이해한다. Ian W. Provan, *1&2 Kings*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전성민, 최종원 역, 『열왕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7), 191-192.

정하는 것이 된다.<sup>16)</sup>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의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야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분투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싸워야 했던 영역들이 단순히 제의적인 분야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싸움이였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전략적인 싸움을 요구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싸워야 했던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의 결과 중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도입된 바알과 아세라 국가 종교의 폐해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가 된다. 우리는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통치권을 거부하다가 심판당한 여리고의 지배층의 결말을 통해 온 세상의 창조주의 통치 이념에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sup>17)</sup>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아합과 이세벨도 역시 그러한 맥락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야훼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하는 신앙이나 병행하는 신앙은 결국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이념에 저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전통적인 야훼 신앙에서는 땅은 이스라엘 자유 농민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sup>18)</su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이 바로 땅과 후손이다.(창 17:4-8)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을 빼앗는 것은 바로 이 언약

16) G. K. Beale, *We become what we worship*, (Nottingham: IVP Academic, 2008), 47.

17) 드 브리스(De Vries, Simon John)는 왕상 16장 34절의 사건(여리고 재건축)을 아합시대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 신명기 사가에 의해 편집된 본문으로 이해한다. De Vries, Simon John, *1 kings* (WBC), 김병하 역, 『열왕기상』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454.

18)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한다. 김희권, 『모세오경』, 218.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작, 자영, 자경할 수 있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레 25:23) 그래서 이스라엘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도, 새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도 사실상 땅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땅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고 세를 바쳐야 할 소작인일 뿐이다.(막 12:1-12, 포도원 농부 비유)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는 언약파괴 행위이자, 땅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적질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삶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결과인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땅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행한다. 아합과 아세라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타자나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편만했던 오므리-아합 시대에는 국가의 부가 수치상으로는 절정에 달했던 때이다.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활동들을 보면 수치상으로 극에 달했던 부가 아합과 이세벨을 위시한 왕족들과 그들과 결탁된 귀족, 지주 세력들에게만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야훼 신앙을 쫓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도들이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음(왕하 4장)과 전쟁과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의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왕하 4:38-44)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중에 이렇게 친민중적, 친서민적 활동이 많았던 것이 전 국가적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결국은 왕실과 일부 귀족층만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전통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sup>19)</sup> 엘리야, 엘리사는 바로 이런

19) 우택주는 엘리야·엘리사 시대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이 시대를 ‘대지주화 과정’이 일어난 시대로 평한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우택주, 『8세기 예언서 이해의 새지평』(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99-101.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폐해까지 치료하고 회복한 사역이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원천적으로 대항하는 오므리-아합 왕조를 끝장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대리자인 아합과 이세벨, 나아가서는 오므리-아합 왕조를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는 남유다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자 한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끌어들인 장본인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러한 큰 틀에서 엘리야를 통해 예고 되어 있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의 전략을 통해 빼앗은 다음 그것을 차지하려 이스라엘 땅으로 달려간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왕상 22:19)라는 표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대변하는 말이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죽이고 빼앗는 종교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종교이고 사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종교를 숭배하는 아합 가문을 향해 심판의 칼을 빼 든다.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벽에 오줌 누는<sup>20)</sup>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놓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왕상 21:21) 하나님은 아합 가문의 멸절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가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왕상 21:26) 이것이 아합에 대한 심판의 근거다.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가나안 족속도 원래는 그곳에 살고 있는 더 이전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 하지만 아모리 사람들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모리인들을 심판하시고

20) <sup>על</sup> <sup>ה</sup> <sup>כ</sup> <sup>ה</sup> <sup>ע</sup> <sup>ל</sup> <sup>ה</sup> <sup>ע</sup> (마쉬틴 베키르, 벽에 오줌 누는 자)는 한글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셨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 때에 와서 그러한 삶이 현저히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합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듯 보이자 하나님은 아합의 시대에 멸절 계획을 그 아들들의 시대로 유보하신다.(왕상 21:29) 이 말씀 속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합 개인에 대한 심판을 면제하시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합의 죽음과 연관된 이 글의 핵심 주제로 넘어간다. 아합에 대한 심판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본성상 이 심판이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인 회개가 진실되고 근본적인 것이었다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 질 수 있었을 것이다.

### III. 아합의 심판에 적용되는 신적 거짓(왕상 22:1-38)

#### 1. 하나님의 신적 속임으로 심판 받는 아합

이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왕상 20:42, 21:21)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는 아합의 완고한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아합의 완고하고 거짓된 모습을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을 속이는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서서 아합의 계략을 파쇄하시고 아합을 심판하신다.

열왕기상 22장 1-18절과 24-38이 아합 왕의 통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면, 열왕기상 22장 19-23절은 인간세계의 결정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적 세계의 결정이다. 두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건이 진행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세계를 비교해 가면서 아합과 하나님의 대결을

살펴보아야 한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왕과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못을 아람왕의 손에서 회복하지 않고 있는 것의 잘못을 지적한다.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아람왕 벤하닷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오므리) 때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노라고 약속한다. 그 조약이 바로 포로로 잡힌 아람왕 벤하닷을 풀어준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태도였다.(왕상 20:13, 28) 아합은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질책을 선지자로부터 받는다. 원래 아람왕 벤하닷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왕상 20:42)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판단과 사욕에 따라 전쟁하는 것을 보여준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에 걸친 전쟁 후 3년이 평화스럽게 흘렀다는 열왕기상 22장 1절의 성경의 보도는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아합의 명분을 의심하게 만든다.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1-2차 전쟁에서 크게 패한 아람이 강화조건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 기간이 평화스럽게 3년을 흘렀다는 것은 아람이 강화조건을 적절히 이행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는 명분을 내건 것은 아합의 사적 욕망이 동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아합은 지금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를 전시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웃 동맹국가인 유다까지 동원하고자 한다. 이처럼 아합은 철저히 거짓의 사람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있다.<sup>21)</sup>

아합이 철저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21)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고자 하는 아합의 욕망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왕상 20장에서 아람이 아합에게 패한 후에 돌려주기로 한 땅인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정주, 『열왕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7.; John Gray, *1 Kings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657. ; Ian W. Provan, *1&2 Kings*, 235. 그러나 22장과 21장이 연결된다고 보았을 때, 21장에서 아합에 대한 심판이 아합의 겸비함 때문에 유예된 것을 볼 때, 심판을 촉발시킨 사건은 길르앗 라못 전쟁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길르앗 라못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있는 그런 속임에 하나님도 속임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22장 20-23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아합의 길르앗 라못 정복에 대한 지상의 어전회의 이전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아합의 길르앗 라못 전투 결정은 하나님에 의한 신적 속임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신적 어전회의에서 아합을 피어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기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갔을까? 아합에 대한 심판은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굳이 길르앗 라못의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합을 심판하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아합의 길르앗 라못 정복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은 동시 동작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순서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합이다. 동일한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인간 아합의 자기 욕망이기도 하다.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고자 하는 아합의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아합을 속이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합은 자신의 욕망에 속고 하나님에 의해 속임을 당하여 심판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이고 불순종한 아합에게는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합의 욕망을 이용한 하나님의 신적 속임이었다. 하나님은 아합의 욕망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합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합의 속임과 불순종을 미가야와의 대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6절 이하에 보면 사 백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리라는 신탁을 전하자 여호사밧왕은 약간 의심하면서 미가야를 옆두에 두고나 있듯이 다른 선지자를 요구한다. 이때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소개한다. 그 소개하는 말은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이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들린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6절에서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불러왔을 때 하는 말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가야는 왕에게 불러 왔을 때,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하지만 아합은 이 신탁에 대해 미가야에게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요구한다. 마치 진실한 것을 말하면 듣겠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미가야는 진실한 것을 말한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진실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합은 이 진실한 예언 앞에서 또 자신을 속인다.

이 기사는 우리에게 바벨론왕이 유다 땅을 맡긴 총독 그다라를 이스마엘이 죽였을 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모든 군 지휘관과 함께 하는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려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길 요청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렘 41, 42장) 이때 이들은 예레미야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지만(렘 42:5), 정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자(렘 42:19, 20)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거짓말 한다고 말하고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매도한다.(렘 43:1-7)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더 정당화해 줄 거짓 선지자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합도 진실한 것을 들려줘도 그것에 따르지 않고 다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속였다는 것도 맞지만 아합은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진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상태인 것이다.

이제 장소는 전쟁터로 바뀐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아합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왕기상 22장 30절을 보면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

도착한 다음,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테니 여호사밧왕은 왕복을 입으라고 권한다. 이 권면대로 유다왕은 왕복을 입고, 아합은 왕복이 아닌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을 것이다. 아람왕과 아람 병사들은 오직 한 사람만 찾는다. 누구나 왕복을 입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처럼 아합은 아람왕과 아람 병사들은 잘 속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 열왕기상 22장 34 절을 보면 정말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을 비껴가서 갑옷 사이의 이음새를 뚫고 들어갔다. 사람들은 다 속였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 2. 신적 속임에 대한 성경의 다른 예들

하나님께서 신적 속임을 전략으로 사용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자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에게 악한 충동질을 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보다 후대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역대상 21장에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악한 충동의 원인으로 보려는 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은 언급되어 있지만(삼하 24:10) 왜 죄가 되는지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다윗이 많은 군사를 거느린 강대국으로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에 해당하는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다.(삼하 8:15, 시 89:14)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의 의미였다.(창 12:2, 18:19)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할 때 기뻐하셨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군

사적 강대국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를 속이시는 하나님의 속임에 속임 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요압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거절하고 주변 강대국들과 같이 군사력과 병력으로 다윗 제국을 건설하려는 다윗의 욕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속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윗의 욕망을 곧바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욕망을 인정하신다는 거짓 계시를 다윗에게 주심으로써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물론 다윗을 향한 심판과 아합의 심판의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신적 속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신적 속임의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에게서 발견된다. 예레미야 4장9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전달하면서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고 선포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렘 5:26-31, 6:13, 14, 14:13, 14, 23:18-19)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호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평화라는 거짓 계시를 전달하셨던 것이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특히 28장은 여호야긴 왕이 곧 석방되어 돌아 올 것이고 사로잡혀 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반대로 예언하는 기브온앗의 아들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을 보여준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한 가지가 있다. 모든 거짓 선지자가 신적 속임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레미야 5장 26-31절과 23장 13-17절에서 보여주듯

이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신적 속임을 받아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과 자신의 탐욕을 좇아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입이 평화를 외쳤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 평화를 전달하셨다가 심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유다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신적 속임의 예를 발견한다. 이 본문은 흔히들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11-20장 사이의 다섯 본문 중의 하나이다.<sup>23)</sup> 다섯 본문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20장 7-18절에 들어 있는 7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7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 한글 개역개정에서 ‘권유’라고 번역된 두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어원은 같지만 형태는 다르다. ‘권유하시므로’의 권유는 ‘필티타니’(피엘, 강세능동형)로 문맥상 주어를 살려 보다 직역한다면, ‘주께서 나를 속이시므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의 권유는 ‘파옐파트’(니팔, 단순재귀형 혹은 단순수동형)로 접속사까지 살려 직역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속임을 당했으며’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뒷 부분의 형태(파옐파트)는 와우연속미완료의 형태로서 앞의 형태(필티타니)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24)</sup> 그 다음에, 10절에서 개역개정의 표현을 따르면, “... ..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부분도 히브리어 어원으로는 위에서 보았던 7절과 같은 동사, ‘예플테’(푸

22) Tremper Longman III, *Jeremiah, Lamentations*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이철민 역, 『예레미야』 (서울: 성서유니온, 2017), 80.

23) 박동현,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0), 180.

24) 위의 책, 182.

알, 강세수동)로서 직역한다면, '그가 속임을 당하리니'이다. 그런데 이 속임이 한글 '유혹'으로 번역되어서 자칫 성적 유혹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문맥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이 구절의 1인칭 복수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속이는 주체이지도 않다.

위 구절에서 예레미야를 속이는 주체는 7절에서와 같이 야훼 하나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밝혀져 합법적으로 처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신명기 18장 20절에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7절과 10절이 포함된 부분을 문맥을 따라 풀어쓰기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7절에서 예레미야가 주님께 속임 받았다고 표현한 부분은 예레미야 받은 예언사역을 말하는 부분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예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다.(8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평생 이 길을 걸어야 했던 예레미야는 원하지도 않는 이 일을 주님의 '강요'에 못 이겨 수행했어야만 했었다.(렘 17:16)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선포는 신명기 18장 20-22절에 의하면 성취되지 않을 때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어 공개적인 처형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예레미야의 주변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통치시대로 왕과 이스라엘 지배층의 욕구에 맞추고 국민들의 애국적인 열망에 부응하여 히스기야와 이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앗시리아의 산헤립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이 속에서 유독 예레미야만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나서 이 예언대로 집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예언의 선포와 집행 사이에 있는 동안을 다루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속임을 당한 거짓 선지자로 밝혀져서 합법적으로 처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한 예언이 성

취되기를 그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실현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루는 예레미야의 고백본문(렘 20:7-13)이 나온 것이다.<sup>25)</sup>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에스겔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에스겔서 14장에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 두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아온 이야기다.(1절)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심히 모욕감을 느끼시면서 그러한 물음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4절) 그 형벌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여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나쁜 사례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이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9-1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경우가 등장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악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신탁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3절)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본문의 경우는 에스겔이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9-10절에서는 만약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여 예언행위를 하는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자신의 사욕을 따라 예언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한글 표현에서 유혹을 받는 주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예언행위를 하는 선지자다. 그리고 유혹하는 주체는 하나님으로 명시되어 있다.<sup>26)</sup>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예언행위를

25) J. J. M. Roberts, *Does God lie? Divine Deceit as a Theological Problem in Israelite Prophetic Literature,*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vol. 40, 217-218.

26) 하지만 이 구절은 유혹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어떤 존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혹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선지자를 유혹하신다는 의미이다. 이때 유혹(예폴테, 피테티)은 위에서 살펴 본 예레미야 20장 7, 10절의 '권유', '유혹'과 어원상 같다.<sup>27)</sup>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의 책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오직 나는 여호와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 3:8) 마땅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에게 예언하는 행위는 에스겔 14장 10절에 의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온 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속임을 받아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벌이다. 여기서도 속임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의 죽음의 사건으로 되돌아가면, 이 블라의 아들 미가야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다고 언급함으로써 신적 속임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명시한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난 대화 중에서 아합을 속이라(20절, 피어, 예파테, 피엘형)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한 영의 대답(21절, 내가 그를 피겠나이다, 아파텐누, 피엘형), 그리고 한 영의 제안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담고 있는(22절, 너는 피겠고, 테팔테, 피엘형)부분에서 “속이라”, “피겠나이다”, “피겠고”는 모두 어근이 ‘파타’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적 속임의 예로 든, 예레미야 20장 7, 10절과 에스겔 14장 9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어근이 같은 신적 속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간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아람과의 전투를 하다가 죽임당한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신적 속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27) J. J. M. Roberts, "Does God lie? Divine Deceit as a Theological Problem in Israelite Prophetic Literature," 218-219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일에서 아합과 아합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한 것은 아니다. 아합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하고자 한 아합의 욕망과 아합에게 빌붙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책임 또한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해서 이사야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사 29:10)고 말한다. 이 부분을 NASB는 “For the Lord has poured over you a spirit of deep sleep, He has shut your eyes, the prophets; And He has covered your heads, the seers.”로 번역한다.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 NASB는 눈을 선지자로, 머리를 선견자로 번역한다. 거짓 계시를 받아들이는 잠자는 영의 상태가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합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신적 속임이라는 전략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몇몇 예에서 하나님의 신적 속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거짓됨의 기원을 하나님의 작용에서 찾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거짓에 빠지는 경우도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적 속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을 교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찌면 이것은 성서학이 아닌 조직신학 분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성서학과 조직신학의 긴장을 유발하는 주제인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아합의 길르앗 라못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할을 탐구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짓 영을 보내어 아합 주변의 선지자들을 속임으로써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을 믿고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했지만 결국은 아합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탐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하게 만든다. 먼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상승배로 물들인 장본인인 오므리-아합 왕조를 향한 심판예언의 집행과정에 일어난 것이다.(왕상 21:19)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는 속이는 방법을 통해 아합을 심판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모순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윗이나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아합의 경우, 하나님의 속임은 그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속이려는 그 욕망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아합의 타락된 욕망은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속임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sup>28)</sup>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이러한 전략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죄인이 회개함 없이 죄를 품고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임을 당하여 심판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자신의 뜻에 대한 바른 감각,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시 111:10).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자신의 전능성을 드러내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오만함에 이용당하시는 비도덕적이고 무능한 신으로 하나님은 전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적 속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시 18:26-27)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대로 그대로 갚아 주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단지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 하나님은 무

28) 신약에서도 로마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버려둠을 심판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한다.(롬 1:24-32)

력하게 조롱당하시는 신이 아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속임으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8)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는 자는 속이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인간편에서 사랑과 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조롱당하거나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정주. 『열왕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용인: 킹덤북스, 2015.
- 김회권. 『모세오경』.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 박기형. “오므리의 율례와 우상숭배”, *숭실대 인문학연구 50집*(2021년 12월 간행 예정).
- 우택주. 『8세기 예언서 이해의 새지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 이상원. “신명기사가에게 요시야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27(1)호 (2021), 166-191.
- 박동현.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0.
- Beale, G. K. *We become what we worship*. Nottingham: IVP Academic, 2008.
- Gray, John. *1 Kings*(*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김진호 외 2인 역. 『국제성서주석, 열왕기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Kaiser, Walter C. Jr. *Hard Sayings of the Bible*. 김재영 외 3인 공역. 『IVP 성경난제주석』. 서울: IVP, 2017.
- Longman, Tremper III. *Jeremiah, Lamentations*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이철민 역. 『예레미야』. 서울: 성서유니온, 2017, 80.
- Miller, J. Maxwell and Hayes, John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박문재 역. 『고대 이스라엘 역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 Nelson, Richard.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김회권 역. 『열왕기상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Pritchard, J. B. *ANET 3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Provan, Ian W. *1&2 Kings*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전성민, 최종원 역. 『열왕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7.
- Roberts, J. J. M. “Does God lie? Divine Deceit as a Theological Problem in Israelite Prophetic Literature”,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Vol. 40, 211-220.
- Sweeney, Marvin A. *1&2 Ki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Abstract>

## The Study of 'God's divine deceit' in God's Judgment of Ahab(1 Kings 22)

Huh, Hwangu

The last book of so-called Deuteronomic history, 1&2 Kings include Elijah-Elisha narratives (1 Kings 17-2 Kings 12). The background of Elijah-Elisha narratives is Omri-Ahab dynasty's Baalism. At that time, Baalism was penetrating into all over the country of Israel. The spreading Baalism threatened the identity of Israel as God's covenant people. Against this attack God sent Elijah-Elisha as the agent of God to protect Israel's faith. The main theme of the 'Elijah-Elisha Cycle' (1 Kings 17-2 Kings 12) is the two prophets' activities against Omri-Ahab dynasty's Baalism.

God ordered Ahab to return to the worship of God by sending Elijah-Elisha. God also warned through Elisha that Ahab would perish. (1 Kings 21:19) Despite God's mercy for Ahab, he walked the path of betraying God. Ultimately, God punished Ahab by means of divine deceit. God used false prophets to entice him into going to the battle at Ramoth-Gilead. Here, the following question arises: Is God right to use divine deception for judging Ahab?

The key idea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God's divine deceit to punish Ahab is right. First, it was prophesied that Ahab would be destroyed by God for his evildoing to Naboth. Only the judgment was being delayed. Second, examples of divine deception are found in other parts of the Bible (1 Samuel 24, Jeremiah 4, 20, Ezekiel 14). Third, divine deception is mixed with Ahab's free will to disobey God's will.

Keywords: Deuteronomic history, 'Elijah-Elisha Cycle', Omri-Ahab dynasty, Baalism, Divine deceit, Judgment of God.